

文化空間으로서의 國立公園

- “한국방문의 해”에 느끼는 것 -

李 賢 宰
(國立公園協會 會長)



“한국방문의 해”를 弘報선전하는 觀光세일즈 使節이 전통예술단을 同伴하고 先進各國을 순회하는 등 外國손님 誘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모처럼의 국가적 企劃만큼 온 국민의 협조속에 所期以上の 성과가 擧揚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다만 한가지 強調해두고자 하는바는 지금 당장의 成果에 집착한 나머지 無理한 추진책을 動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과 짐짓 一過性행사에 그치는 通폐를 答습해서도 안되리라는 것이다.

이번 機會를 우리나라 觀光産業 전반에 대한 總點檢과 再整備을 위한 研鑽의 계기로 삼음으로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처있기를 促求한다.

우선 觀光對象만 하더라도 너무 限定된 범위에서 개미 쳇바퀴 도는式이라 어딘가 허전한 感を 떨쳐 버릴수 없다.

서울의 古宮과 中央博物館, 龍仁民俗村, 慶州등 몇몇군데로 고정화된 單調로운 코스와 볼거리만으로 과연 多樣한 趣向의 海外觀光客을 제대로 맞을수 있을런지 의문인것이다.

이제야말로 이 나라의 代表的 自然景勝이며, 自然資源의 寶庫인 國立公園을 효과적으로 利用케하는 새로운 巡訪코스과 프로그램의 開發에 注力할 때다.

秀麗한 自然풍경과 함께 각종 동식물 生態系와 독특한 人文資源이 共存하는 운기있는 韓國美의 文化空間으로 다듬어서 外國探訪客을 손짓해보라는 것이다.

마야호로 歐美先進各國에 風靡하고 있는 이른바 에코투어리즘이 野生生物을 포괄하는 特定지역의 自然환경과 文化유산을 함께 공부하고 理解하는 값진 旅行이라 하여 人氣를 모으고 있는점에 留意해야 한다.

此際에 우리나라 國立公園의 실태를 살펴보면 進入道路, 숙박시설, 상업시설, 주차장등 하드웨어 部門은 그런대로 정비되어 있으나 소프트웨어 分野는 고작해서 展望臺, 안내판 정도의 初歩의인것에 머물러 있으며 비지터센터를 비롯한 自然관찰路 생태박물관등 自然學習場으로서의 機能은 度外視되고 있다.

國立公園은 觀光레크레이션의 場으로서뿐 아니라 自然에 대한 산教育의 場으로서 次元 높게 利用될 수 있도록 配慮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自然을 文化의 눈을 통해 볼 수 있게 하고 文化 또한 自然속에서 吟味할 수 있게하는 高尚한 서비스의 提供에 公園 管理의 焦點을 맞추어야 한다. 물론 巨視의이고 思慮 깊게 立案된 마스터플랜과 周到綿密한 中長期 실행계획에 의거한 國家豫算의 뒷받침이 切實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1世紀를 주름잡아갈 高度文化國家의 隊列에 어깨를 겨누려면, 그에 相應하는 自然環境과 文化環境을 갖추어야 한다. 플라톤은 “삶 그 自體가 目的이 아니라 좋은 삶이 目的이다”라는 意味深長한 말을 남겼지만 自然的環境과 文化的環境과의 멋진 調和야말로 우리들 삶의 質을 높여주는 가장 바람직한 상태가 아닐까...